우리 복지관은 지금

2.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중

연기와 동체대비로 이어지는 불교사회복지 실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회 곳곳에서 이웃과 함께해 왔습니다. 사찰의 마당에서, 복지관의 상담실에서, 재난 현장의 임시 거처에서 재단의 자비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언제나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전국 각지의 사찰과 사회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복지 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의 고유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기반 복지 현장에서는 무료 급식, 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 상담과 지원 등 일상적인 복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 가는 복지를 지향해 왔으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는 동체대비의 정신에서 비롯된 실천입니다.

이러한 불교사회복지의 철학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장기간 치료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난치병 어린이와 그 가족을 지원하며, 아이 한 사람의 고통을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고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단의 난치병 어린이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를 넘어, 아이가 다시 일상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불교적 돌봄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운영·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복지시설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와 관리 차원을 넘어 이용자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는 신체적 돌봄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보살행'의 현대적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재단의 자비 실천은 계속 이어집니다. 국내외에서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긴급 구호 체계를 가동해 생필품 지원과 의료 지원, 심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존재라는 불교의 가르침 위에서 불교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원예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임

대만불교 포교일기 ① 출세(出世)의 정신, 입세(入世)의 사업

치열한 정진, 자비행으로 꽃피우다

K-문화 인기 속 한국불교 중요 전환점
사찰이 평안·배움 얻는 '인생 학교'로서
청정 수행·중생 행복 위한 이타행 해야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산속을 벗어나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온 불교는 어떤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가?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 큰스님(星雲大師)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한다.

대만 불광산사는 성운 큰스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출세(出世)의 정신으로 입세(入世)의 사업을 하라"는 말씀이다. '출세'란 세속의 번뇌를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본분을, '입세'는 고통받는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실천을 말한다. 큰스님께서는 수행자의 마음은 추호의 흐트러짐 없는 청정함을 유지하되, 그 자비의 손길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 속에서 꽃피우고자 하는 '인간불교(人間佛教)'의 핵심이다.

필자의 가슴을 뜨겁게 적신 것은 이 거대한 불사들을 가능케 한 스님들의 '원력(願力)'이었다. 성운 큰스님께서는 평생 "나는 빈손으로 시작했으나, 오직 중생을 돕겠다는 원력 하나로 전 세계에 법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원력은 아이들의 동심을 가꾸는 유치원부터 지혜의 전당인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으로 꽃피었다. 미국의 서래대학(西來大學)을 시작으로 대만의 남화대학(南華大學)과 불광대학(佛光大學), 호주의 남천대학(南天大學), 그리고 필리핀의 광명대학(光明大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건립된 5개의 대학은 불교 교육 역사에서 유례없는 원력의 결실이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늘날, 한국불교 역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전법은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아픔을 공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 사찰이 기도의 공간을 넘어 누구나 찾아와 평안을 얻고 배움을 얻는 '인생의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수행자는 세속의 명예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출세의 정신'을 굳건히 하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중생의 행복을 위한 '입세의 사업'이 돼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먼저 스스로를 닦고 세상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육조 혜능 대사께서도 말씀하셨다. "불법은 세간에 있다. 깨달음은 세간을 떠나 있지 않으니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求菩提, 猶如覓兎角)." 우리는 출세간의 청정한 마음으로 온 세상의 행복을 일구는 전법의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언젠가 한국 스님들이 불광산사를 방문했을 때, 분주히 움직이는 대중들을 보며 "불광산사 스님들은 이렇게 바쁜데 언제 수행을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성운 큰스님은 "그건 수행이 아니라 휴식이다"라고 답했다. 이 말씀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입세의 사업과 자기 내면을 닦는 출세 수행이 결코 둘이 아님을 뜻한다. 이타행(利他行)이야말로 수행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수행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환희야말로 최상의 휴식이라는 통찰이다. 성운 큰스님이 평생 보여 주신 이 원력의 정신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이 담겨 있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② 조고각하(照顧脚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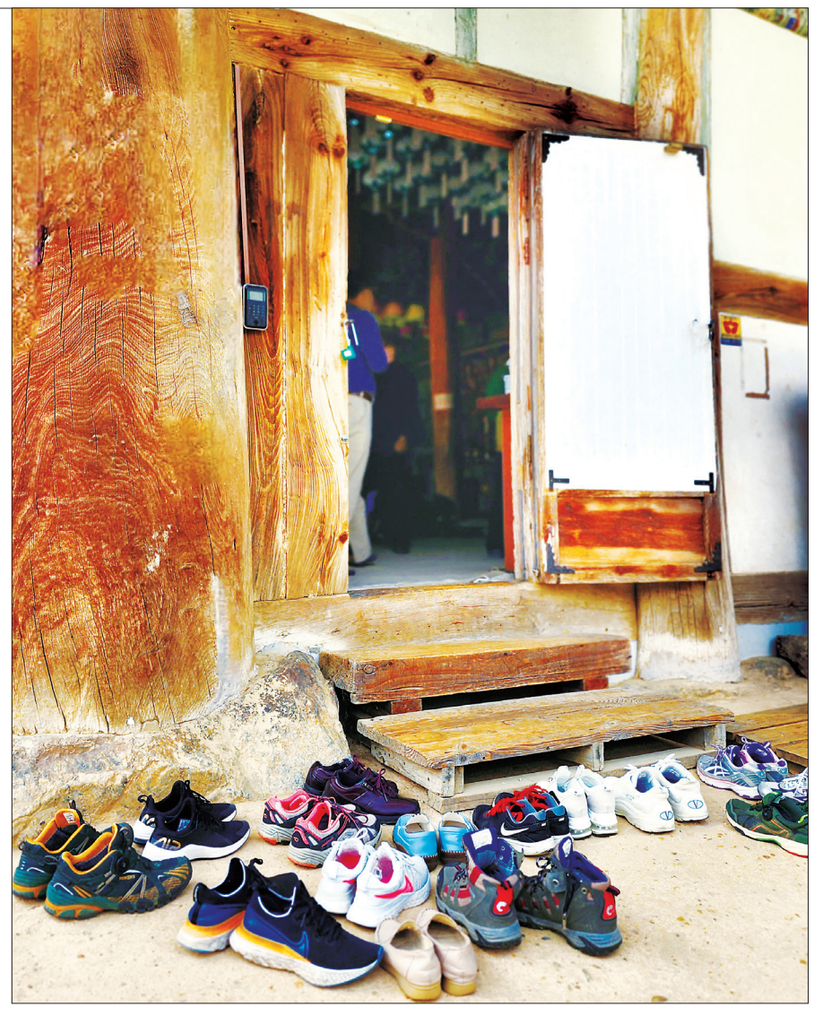
법당으로 들어간 발이 벗어 놓은 '그림자'가 가지런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달랑 두 식구 사는 집에서도 신발 곱게 벗어 두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절에서는 그게 된다.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는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왔을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는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세상의 신발들이 법당의 늙은 문턱 아래에 총총히 모였다. 작은 발, 큰 발, 바쁜 발, 지친 발이 한데 모여 쉰다. 달뜨고 숨 가쁘며 기쁘고 슬픈 길 위의 시간들이 잠시나마 안식한다. 그렇게 비워진 켤레마다 저마다 원하는 시간이 고여 들면 좋겠다.

'조고각하(照顧脚下)'. '발밑을 살피라'는 이 쉬운 말씀을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라는 말이 변명만은 아니다. 조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절에 오면, 절로 그렇게 된다. 절집이라는 공간의 힘이다.

절에 가 보면, 알게 모르게 얼마쯤이라도 자신이 살펴진다. 절집이 문을 열어 두는 이유다. 절에 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찰이자 기도다.

손영자 작가



마곡사 대웅전.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0822호)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안한 사고 및 알코올성 보험금의 경우 2년이 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사전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 (당사홈페이지)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 (2025-09-23~2026-09-22)